PRAY FOR INDONESIA

박기준 손민아
6월 기도편지



저희 가정은 지난 4월 27일, 인도네시아 말랑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한 달의 시간이 빠르게 그리고 분주하게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적응 가운데 주시는 은혜

사람을 통해 주시는 은혜



말랑에서 함께 팀으로 사역하는 두 가정입니다.

김재룡/박은미 선교사님과 **김형건/김선영**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현지 정착을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밤낮으로 저희 가정을 살펴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주시는 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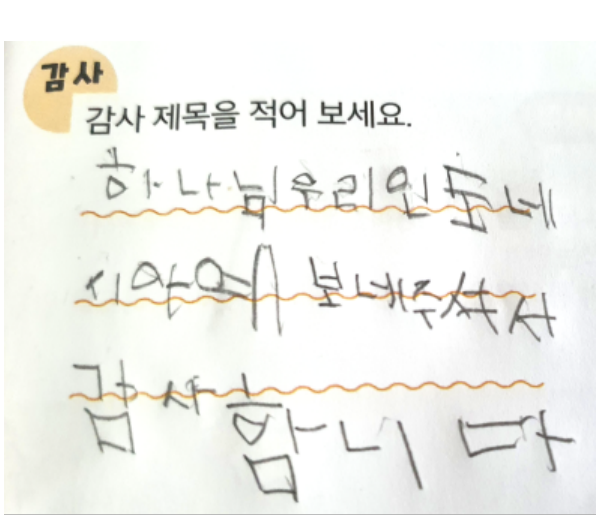


최문식/박성애 선교사님은 말랑까지 손수 찾아와 격려해주셨습니다.
먼 곳 발리에서 육로로 편도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직접 운전하면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한 마음과 함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자녀를 통해 주시는 은혜



아이들도 적응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모기와의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알러지로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환경이라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면역력 저하로 인한 증상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또래 친구들이 제법 있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네시아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찬이의 큐티책에 적혀 있는 감사 제목입니다. 은유는 혹시 한국에 돌아갈까 걱정이 되는지 600밤을 자고 한국에 가자고 합니다.

아이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이 큰 기도 제목 중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저희 가정을 살펴주고 계심을 느낍니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적응 가운데 주시는 은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만큼 '종교' 자체를 중요시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기념일과 힌두교의 기념일도 함께 공휴일로 지정하여 지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기념일 역시 공휴일로 지키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승천일(5/26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40일 동안 현지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부활의 기쁨이 이어집니다. 선포되는 메시지, 찬양 모두 주님의 부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행적을 함께 묵상하니 은혜가 넘칩니다.

적응 가운데 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 11:45)

아직은 인도네시아어를 알아들을 수 없기에 설교 시간에 말씀에 대한 공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받습니다. 익히 아는 찬송가를 통해 한 단어를 배웠습니다. suci(수찌) - 거룩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교회에서 드리는 첫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으로 빚어지기를,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한 것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로 영적인 공급을 받습니다. 온라인의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삶을 능력있게 살아가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응 가운데 주시는 은혜

살렘 신학교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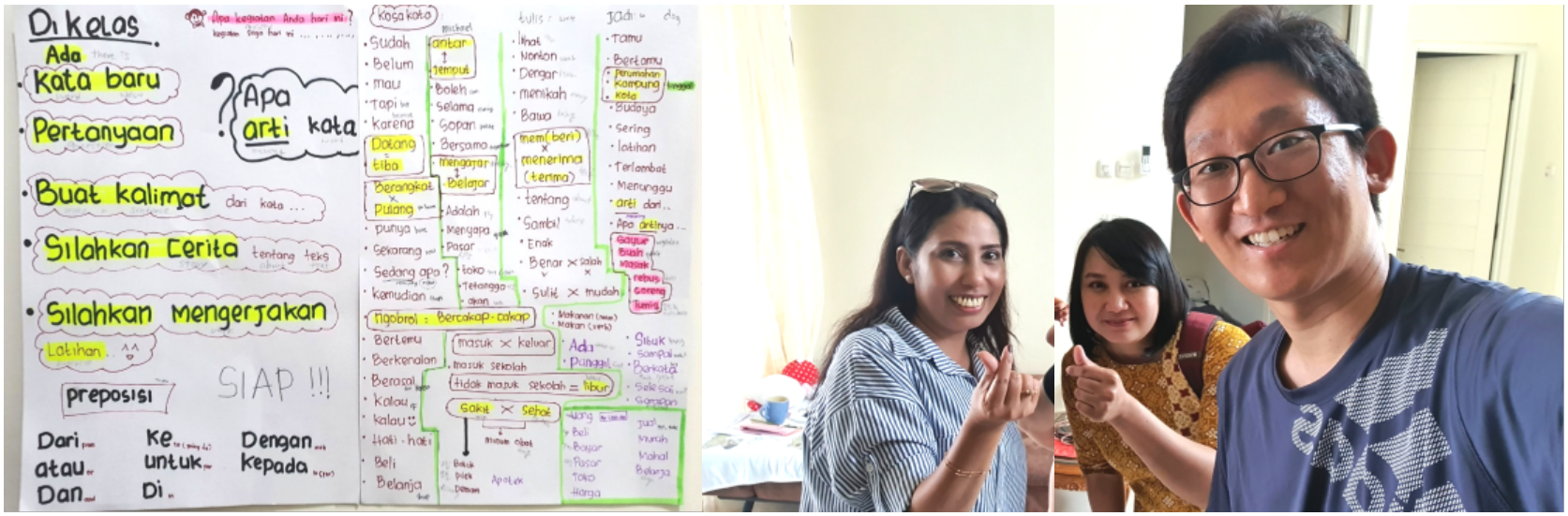
앞으로 제가 사역하게 될 살렘신학교 채플 시간에 말씀으로 봉사했습니다. 김재룡 선교사님께서 통역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려고 강단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들이 인도네시아의 미래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척박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 학생들이 인도네시아의 미래입니다.

적응 가운데 주시는 은혜

언어 공부



현지인 선생님과 손짓몸짓눈짓으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어는 그나마 쉽다고 말했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쉬운 언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배운 것을 바로바로 사용하니 나름 재미도 있습니다. 언어의 진보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적응 가운데 주시는 은혜

RT와의 만남



RT는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센터장입니다. RT를 인도네시아 발음 그대로 읽으면 에르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사를 하면 에르떼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때 에르떼의 사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선임 선교사님과 함께 에르떼의 집에 찾아가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에르떼를 하고 있기에 사정을 물어보니 이맘(이슬람의 종교 지도자)이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비자 발급 등 모든 절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적응 가운데 주시는 은혜

기도의 동역자를 통해 주시는 은혜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교회와 동역자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 가정이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역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도 세밀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1. 사회문화 비자(2달)에서 학생 비자(1년)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2. 언어 공부를 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3.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인도네시아 또한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이 메 일 israsid@naver.com 카카오톡 ID israsid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990-014706-671 KPM박기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세계선교회